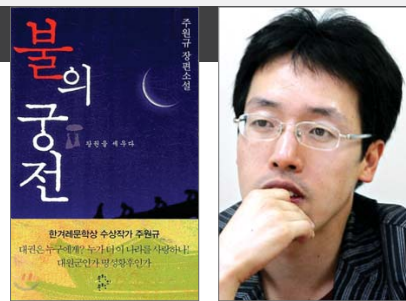


개혁인가 독선인가 역사와 마주한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였다

‘불의 궁전’ 주원규 지음



“누가 나를 비판할 것인가. 나는 국제공이다. 왕의 아버지다. 한때 권력의 노예였으며, 권력의 파괴자였으며, 새로운 권력의 창조자였다. 또한 나는 인간이다. 남자다. 외로움에 목놓아 울 수 있는, 울어야만 하는 사내다.”

철종이 죽고 대왕대비 조씨의 강력한 추천으로 아들 고종이 왕통을 이어받자 흥선대원군은 권력을 쥐게 된다. 안동김씨 일족의 세도정치가 극에 달한 시절에 왕족이었던 대원군은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로행세까지 하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다시 강력한 섭정을 하게 되자 이들 권문세가들은 목숨이라도 부지한다는 심정으로 많은 재물을 싸들고 대원군의 운현궁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흥선대원군은 절망과 희망, 권력의 빛과 어둠을 모두 경험한 이색 인물이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등단 작가인 소설가 주원규씨가 장편 ‘불의 궁전’을 통해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였다. 우리 시대 하루 인생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던 ‘열의인종 잔혹사’로 한겨레문학상을 타며 새로운 장편 서사의 문을 열었던 작가의 치밀한 이야기 전개가 돋보이는 소설이다.

특히 굴곡의 삶을 살았을 대원군의 복잡한 내면 심리와 역사적 주요 사건을 결부시켜 ‘인간 대원군’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원군을 폭군으로만 인식할 게 아니라 그가 처했던 시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새로운 평가를 내리자는 것이 소설의 큰 줄거리다.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 역사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자는 게 이 소설이 주는 감동이다.

해국정책, 천주교 탄압, 무리한 경복궁 중건 등으로 알려진 대원군에 대한 선입견을 벗겨내고, 부패한 권력의 중심에 파고들어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왕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심했던 조선의 역사를 이끌던 개혁가였다는 사실도 부각시켰다.

소설에는 흥선대원군의 인간적 좌절, 진솔한 고뇌가 잘 표현돼 있다.

또 역사적 사실 전달에 급급하지 않고, 심리적 통찰을 통해 서사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난 작가의 노력도 돋보인다.

저자는 “소설이란 허구의 도구를 빌려 결코 평범할 수 없는 비범한 한 인간의 영웅적 기개를 나타내고 싶었다. 격랑의 풍상을 겪어낸 대원군의 내면에 가혹하게 드리워져 있는 인간적 고뇌와 갈등, 송고하기까지 한 집념을 그려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폭풍과도 같았던 시대의 중심에 선 한 인간의 고뇌는 오늘의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주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태어나 총주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주씨는 지난 200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칼’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출신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제2회광주일보문학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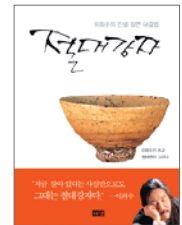
〈문학의문학·1만1000원〉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절대 강자

‘절대 강자’

이외수·정태련 지음



소설가 이외수는 국내 최초로 트위터 팔로워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이들과 소통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70만부 넘게 팔렸던 ‘하악하악’과 ‘아블류 시불류’를 함께 집필했던 이외수 작가와 정태련 화백이 신작 예세이 ‘절대 강자’를 펴냈다.

‘이외수의 인생 정면 대결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의 첫 페이지에서 이외수가 전하는 메시지는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절대 강자다’라는 말이다.

책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있는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한 ‘늑에서 마음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 ‘육안과

뇌안을 감고 심안과 영안을 떠라’, 삶에서 놓치고 있는 감성을 깨워 주는 ‘손금 속으로 강이 흐르라’ ‘마른 가슴에 물주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들려주는 ‘배만 채우지 말고 뇌도 채웁시다’ ‘먼 길을 가려거든 발이 편한 신발부터 장만하라’ 등 모두 10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수가 쓴 149편의 글과 어우러진 삽화도 인상적이다. 그와 30년 지기인 정태련 화백이 세밀화로 그려낸 유물들은 오랜 세월을 견뎌낸 ‘절대강자’들이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용봉문완두대도’ 등 정태련 화백이 그린 유물을 직접 손끝으로 느낄 수 있게 특수 실크스크린 코팅 공법을 활용해 눈길을 끈다.

〈해냄·1만3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항·호텔·커피... 여행의 23개 키워드

‘책과 여행과 고양이’

최병준 지음



초등학교 3학년, 무등산에 첨 올랐을 때 ‘여행’을 알게 됐다. 이후 산과 강을 섭렵하며 학창시절을 보냈고, 여행기자가 되었다.

국내 신문 최초의 여행 섹션이었던 ‘트래블’ 창간에 참여했던 최병준 경향신문 기자가 15년의 여행 이야기들을 담은 ‘책과 여행과 고양이’를 펴냈다.

책은 여행의 다양한 ‘키워드’를 하나씩 던지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시작은 ‘여행을 향한 열정을 생생하게 내는 공간이자, 여행의 출발점’인 공항. 이어 호텔을 거쳐, 커피와 맥주, 담배 등 여행의 친구들에 얽힌 이야기 등 23개의 키워드로 글을 풀어간다.

팔자 편한 글을 보며 ‘개같은 여행’과 ‘고양이 같은 여행’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놓은 그리스의 산토리니 이야기, 여행의 또 다른 묘미인 ‘관찰’의 의미를 들려주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사파리 투어, 서경식의 ‘나의 서양미술 순례’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바티칸 성당의 ‘피에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알렉스 보트의 ‘공항에서 일주일’, 미셀 트루니에의 ‘예찬’, 빌 브라이슨의 ‘발칙한 유럽 산책’ 등 수많은 여행길, 그의 든든한 친구였던 ‘책’에 대해 이야기도 담겼다.

〈컬처그라피·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 관료제 손과 발이었던 말단 관원들

‘조선의 9급 관원들’

김인호 지음



조선시대 백성들을 위협한 것중의 하나가 호랑이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약 4000여명이 호랑이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왕조는 호랑이 전문 사냥꾼인 ‘착호감사’를 고용해 피해를 줄이려 애썼다.

‘착호감사’ 처럼, 조선 관료제의 손과 발로 일했던 이들은 말단 관원들과 그 밑의 사람들이었다.

조한국사연구소 연구원인 김인호(광운대 초빙교수)씨가 역사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시대를 움직여온 보이지 않는 힘이었던 이들의 삶을 그린 ‘조선의 9급 관원들, 하찮으나 존엄한’을 펴냈다.

저자는 방대한 조선왕조실록과 문집 등 자료를 토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삶을 복원해

냈다. 시체를 검시하는 일을 했던 작인(伍作人), 회자수(會子手)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형 집행하는 망나니, 당시 교통수단이었던 말을 치료하는 마의, 관청의 심부름을 하는 소의, 시간을 알려주는 금루관, 모두 남성들이었던 조선시대 요리사 숙수 등 조서시대 관청과 궁궐의 하위 직업을 소개하고 있다.

책은 그밖에 여진과 일본과의 전쟁에서 고급 정보를 빼내오는 간첩, 말을 기르는 목자, 흔히 백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소잡는 전문꾼 거품장, 소금을 만드는 염간 등도 다루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지원 사업 당선작이다.

〈너머북스·1만6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차별속에서도 여성의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행동하라’

양성욱 지음



자신의 핸드캡을 딛고 21세기를 이끌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그린 ‘그리고, 행동하라-29인의 여성 멘토가 들려주는 희망 메시지’가 나왔다.

전직 언론인 출신 양성욱씨가 쓴 이 책은 각종 차별과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 열혈 여성의 삶과 인생관을 그리고 있다.

인도 출신으로 펄스콜라의 회장 자리에서 올라 코카콜라와의 지난한 전쟁

에서 승리를 거둔 인드라 누이, 중남미계 최초로 미국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른 소니아 소토마요르, 하루 10시간 재봉틀을 돌리던 봉제공장에서 중국의 스키 카이 라이언을 다시 그리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가 장신 등이 그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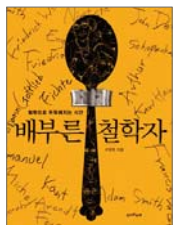
그밖에 패션 시장의 아이콘 스타라 매카트니, 가수 마돈나, 오프라 윈프리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들의 삶도 만날 수 있다.〈민음인·1만3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부는 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하나

‘배부른 철학자’

서정욱 지음



‘철학의 고전들’, ‘철학, 불평등을 말한다’ 등을 통해 즐거운 철학 읽기를 시도해온 서정욱(배재대) 교수가 ‘배부른 철학자’를 펴냈다.

‘배부른 철학자’는 왜 정부가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지, 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줘야 부자 나라가 되는지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통해 들려주는 등 철학의 고전들과 현재 우리 삶의 만남을 시도한다.

에 관한 보고’, 피히테의 ‘독일 국민에게 드리는 부탁’, 칸트의 ‘도덕형이상학 원론’, 니체의 ‘도덕 계보학-하나의 논박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쇼펜하우어의 ‘행복의 철학’ 등의 고전을 만날 수 있다.

〈함께 읽는 책·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비하인드 수학파일=피라미드 건립에 쓰인 수학 공식을 포함해 역사 속 결정적 순간에 사용된 수학 원리를 쉽게 풀어쓴 책. ‘수학으로 다시 보는 삼국지’ 등을 펴낸 수학자 이광연의 신작으로, 기원전 3천500년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20세기 세계 대전까지 인류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수학 공식을 담았다. 역사 속 뒷얘기에 숨겨져 있는 수학적 비밀을 그림과 도표를 곁들여 설명해준다.〈예담·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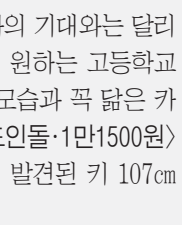
▲안철수의 서재=독서는 그 사람이 가진 정신의 궤적을 보여준다. ‘사랑의 기술’ ‘프랭클린 자서전’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등 안철수가 인생의 길목마다 감명을 받고, 경영에 도움을 주었다면서 언급·추천한 책들을 소개한다. 안철수식 사고와 안철수식 독서경영이 어떻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또 안철수 연구소의 ‘독서 경영’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푸른영토·1만3800원〉



▲불량청춘 카짱=장애가 있는 초등학교와 그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이 일컫는 희망을 그렸던 ‘해바라기 카짱’의 뒷 이야기. 열심히 공부해서 작가가 됐으리라 생각했던 초카사는 독자의 기대와는 달리 반항과 좌절, 폭력이 가득한 청소년기를 보낸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해 정체성을 잃어버린 카짱. 우리의 모습과 꼭 닮은 카짱의 성장통이 섬세하게 그려졌다.〈뜨인돌·1만1500원〉



▲루시, 최초의 인류=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키 1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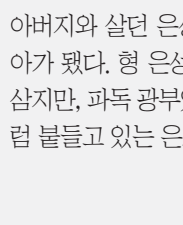
로 추정되는 여성 유골은 ‘루시’라는 이름을 얻고 320만년 전 지구에 살았던 ‘최초의 인류’로 등극했다. 고인류학자 도널드 조헨슨이 처음 루시를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인류의 기원을 밝혀낸 여정을 쓴 책의 한국어판이 15년 만에 재출간됐다. 조헨슨이 1981년 펴낸 원본에 우리말 주석을 꼼꼼하게 추가했으며 출간 이후 30년 사이에 루시보다 오래된 화석이 발견된 사례를 전문가 설명으로 덧붙였다.

〈김영사·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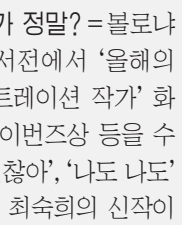
▲핸드메이드 픽션=대산문학상 수상 작가 박형서가 2006년 겨울부터 2010년까지 썼던 8편의 소설을 묶었다. 소설집엔 모두 8편의 단편이 실렸다. 철학·신화·SF·유머 등이 뒤섞여 있다. 금도끼든도끼 설화를 실증하려는 연구팀이 의암호 인근 연못에서 실체 산신령을 불러내는 데 성공했다는 등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문학동네·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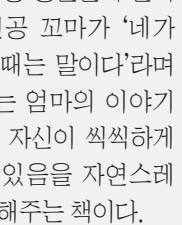
▲십자애 기르기=‘나는 할머니와 산다’로 2008년 세계청소년문학상을 받은 최민경의 장편 성장소설. 가솔한 엄마, 재혼한 아빠 대신 할아버지와 살던 은성, 은호 형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풀지에 고아가 됐다. 형 은성은 이 기회에 멋대로 살기로 작정해 듯 일탈을 일삼지만, 파독 광부였던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플루트를 마지막 희망처럼 붙들고 있는 은호는 온갖 고난에 맞서면서 꿈을 향해 나간다.〈문학과 지성사·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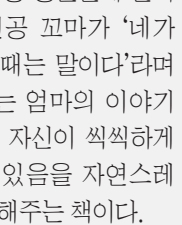
▲내가 정말?=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화이트 레이벤즈상 등을 수상한 ‘켄헨’, ‘나도 나도’의 작가 최숙희의 신작이다. 엄마랑 동물원에 놀러온 주인공 꼬마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다’라며 들려주는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음을 자연스레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웅진주니어·1만원〉



▲사람 문갑 손톱 쥐=해와 나무 출판사가 새롭게 펴내는 ‘굴이구비 옛이야기 시리즈’ 중 한권이다. 사람의 손톱과 발톱을 먹고 사람으로 둔갑하는 천년 묵은 쥐의 이야기를 통해 변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꿈을 이야기한다. ‘집값의 말을 알아듣는 각시’, ‘영터리 명궁 사위’ 등도 함께 나왔다.〈해와 나무·8800원〉



▲똥, 돌멩이가 보물이라고?=30년 넘게 고교학 현장에서 유적과 유물 발굴에 참여해온 고교학자 신창수씨가 들려주는 어린이 고고학 이야기다. 도훈이와 친구들을 주인공으로 동화를 들려주듯 구석기, 신석기, 삼국시대, 발해



등 시대상으로 대표적인 유물과 그때의 생활상을 소개했다. 생생한 발굴 현장을 다룬 사진도 인상적이다.〈그린·북·1만3000원〉

▲하울리아어이=1만원

▲마이볼=지난 2007년 ‘동물농장’으로 제15회 노마 콩쿠르에서 입상한 유준재 작가의 신작이다.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저자가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잠실운동장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써낸 작품이다. 유난히 야구를 좋아했던 아버지, 야구 글러브와 배트를 사다 주신 아버지, 프로야구 열기가 가득했던 때 야구장에 데려갔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문학동네·1만2800원〉

▲하울리아어이=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몽 시리즈’ 중 한편으로 엄마 아빠의 관심을 독차지하던 아기 토끼 시몽에게 동생이 생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리듬

감과 의성어, 의태어들은 아이들의 언어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하울리아어이=1만원

▲마이볼=지난 2007년 ‘동물농장’으로 제15회 노마 콩쿠르에서 입상한 유준재 작가의 신작이다.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저자가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잠실운동장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써낸 작품이다. 유난히 야구를 좋아했던 아버지, 야구 글러브와 배트를 사다 주신 아버지, 프로야구 열기가 가득했던 때 야구장에 데려갔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문학동네·1만2800원〉



▲마이볼=지난 2007년 ‘동물농장’으로 제15회 노마 콩쿠르에서 입상한 유준재 작가의 신작이다.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저자가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잠실운동장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써낸 작품이다. 유난히 야구를 좋아했던 아버지, 야구 글러브와 배트를 사다 주신 아버지, 프로야구 열기가 가득했던 때 야구장에 데려갔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문학동네·1만2800원〉

▲마이볼=지난 2007년 ‘동물농장’으로 제15회 노마 콩쿠르에서 입상한 유준재 작가의 신작이다.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저자가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잠실운동장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써낸 작품이다. 유난히 야구를 좋아했던 아버지, 야구 글러브와 배트를 사다 주신 아버지, 프로야구 열기가 가득했던 때 야구장에 데려갔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문학동네·1만2800원〉

▲마이볼=지난 2007년 ‘동물농장’으로 제15회 노마 콩쿠르에서 입상한 유준재 작가의 신작이다.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저자가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잠실운동장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써낸 작품이다. 유난히 야구를 좋아했던 아버지, 야구 글러브와 배트를 사다 주신 아버지, 프로야구 열기가 가득했던 때 야구장에 데려갔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문학동네·1만2800원〉

어린이 책꽂이